

피하주입된 IGF-1은 2년 간의 ALS 연구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다

Subcutaneous IGF-1 is not beneficial in 2-year ALS trial

E.J. Sorenson, MD
 A.I. Windbank, MD
 J.N. Mandrek, PhD
 W.R. Bamlet, MS
 S.H. Appel, MD
 C. Armon, MD
 P.E. Bakhaus, MD
 P. Bosch, MD
 K. Boylan, MD
 W.S. David, MD, PhD
 E. Feldman, MD, PhD
 J. Gas, MD
 L. Gutmann, MD
 J. Katz, MD
 W. Krog, PT
 C.A. Luciano, MD
 L.F. McJuskey, MD
 S. Nash, MD
 D.S. Newman, MD
 R.M. Pasuzzi, MD
 E. Rono, MD, DPhil, FRCP
 L.J. Sams, MD
 S. Scelsa, MD
 E.P. Simpson, MD
 S.H. Subramany, MD
 E. Tsyk, MD
 C.A. Thornton, MD

배경 : 근육위축가쪽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에서 insulin-like growth factor type I (IGF-1)에 관한 이전의 임상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ALS 환자에서 IGF-1이 유용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3상,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20개의 의료 기관으로부터 총 330명의 환자들이 지난 2년 간 하루 2번 0.05 mg/kg의 human recombinant IGF-1을 피하주입 받거나 위약을 투여받았다. 입차 결과에 대한 측정은 manual muscle testing score의 변화였다. 이차 결과에 대한 측정으로는 가만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생존과 revised ALS functional rating scale의 변화율이 포함되었다. Intention to treat analysis를 사용하였다.

결과 : 2년간의 치료 기간 후 입차 또는 이차 결과 측정에서 치료군 간 차이가 없었다.

결론 : Insulin-like growth factor type I은 ALS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

Neurology® 2008;71:1770-1775

